

詩話(選外)

=詩의 初學者에게=

황석우

詩人은 神의 玉座에 對坐하다 榮光을 가졌다. 詩人은 實로 藝術界의 帝王일다. 詩人의 感興은 곳 神人과의 接觸- 그 會話일다. 그러나 神의 말은 細菌보다 纖微하다. 이 纖微의 壙圖가 곳 「表現」일다.

△

詩에는 「靈律」한 맛이 잇슬뿐이다. 技巧라함은 結局 「靈律의 整頓」에 不外하다. 다시 말하면 律이라 함은 氣分의 織目(오리메, 필자주: 織り目, 발, 직물의 울과 울 사이)을 이룸일다. 이 氣分의 機의 機微를 암에 이르러야 비로써- 人의 詩人됨을 엿는다.

△

色彩 香 形의 造粧 選擇 調和 等은 固히 技巧의 重要項目이나 이는 僅히 그 外律 곳 그 裝飾形式에 不過하다. 「詩는 繪畫의이 되지 안어서는 안이된다」 함은 곳 이곳에 重히 根底를 둔 말이다. 繪畫性은 詩의 必要要素의 一일다. 그러나 單히 外飾으로와 하이카라의의 繪畫的 加工이어서는 안이 된다. 그 色彩 그 香 그 形이 곳 詩의 血液의 色 香 쏘는 이것에 適한 自然形이 되지 안이하 여서는 高貴한 價値를 占히기 不能하다.

△

詩는 繪畫的 要素와 共히 音樂的 要素와의 精을 握히 藝術일다. 그림으로 「音響」의 節制 洗鍊이 詩의 가장 緊要한 工夫(필자주: くふう, 궁리, 坐禪에 專心하는 일)일다. 「音響」은 詩단 참 人格의 呼吸 그 脈의 鼓動일다. 이것이 普通時의 音性律 音量律 等이라 하는 者(필자주: もの, 형식명사 ‘것’)일다.

△

詩의 象徵派라며 民謠派라며 寫象派 等이람은 그 내용으로 보담도 色彩 香 音響의 配列形式 如何에 區別되는 者일다.

△

詩에는 「人語」와 「靈語」의 別이 있다. 詩의 用히는 語는 곳 이 靈語일다. 靈語람은 人間과 神과의 交涉에만 쓰이는 語學일다. 그러나 이 「말」에는 ××도 업고 學校도 업다. 그림으로 天才가 아니면 그 「말」을 學히 수 업다. 이 靈語에 依히여 ×히 者라야, 비로써 詩라는 일함이 쏘는다. 彼 「人語」 곳 「現實語」에 依히야 ×히 俗×, 歌 等 쏘는 商賈藝術派(麵麪 쏘는 名利 썩 문에 맞치 拾錢 萬年筆갖은 싼 原料의 模擬의 玩具藝術派)의 作이, 비록 올마콤 詩의 形式을 具히야 잇다 하드리도, 그는 決코 詩가 아닐다. 強히 그것을 詩라 히려면 或 「人語詩」라고나 稱함이 그것들의게 對히 最上의 優遇라 히겟다. 現代의 亞細亞詩壇도 其中엿 사람을 除히 外에는 아직도 이 人語詩의 領域을 버서잇지 못하다.

△

現實語의 가장 굵고, 가장 完全히 者가 靈語에 取히여는 그 僅々히 맞침의 用에 맞겐 充치 못히게 된다. 靈語에는 靈語로 의 特別히 子母가 잇스나, 靈語의 「性」의 ×和強×의 補用에 例컨디 「一」 「入」 갖은 者로 提供되는 者일다.

△

現實語는 한 空氣(언으 組織體의)일다. 그러나 靈語는 한 液일다. 故 「絶對美」의 液일다. 그림으로 詩는 한 液體일다.

△

詩人은 詩를 보지 아니하고, 詩의 美를 듯는다. 여기가 「詩의 鑑賞의 秘訣」이 풀니는 곳이다. 凡人的 눈에는 詩는 「色을 가진 文字」로밖겐 아니 보히나, 實은 그 色이 遠林의 禽과 갖치, 적은 「바이올린」을 가지고 그윽히 歌하여 잇기 썩문일다.

△

詩人의 詩作의 態度는 神의게 呼掛된 詩, 그 音性의 如何에 依하여 決하는 者일다. 故 態度란은 神과 對立, 또는 對坐할 詩의 그 感情을 일음일다.

△

詩人의게는 冥想이라는 日常科目이 잇다. 그러나 冥想이란은 글자와 갖흔 「싱갓함」이라는 意味가 아닐다. 冥想은 詩人의게 取하면 「神의 眇昏한 宮殿에 入하려는 마음의 한 齋戒」에 不外하다.

△

詩人이 가장 높고, 가장 幽玄한 自我의 寶座에 進을 詩, 故 무엇의 확실한 美를 呑킬 詩, 그 美에 融을 詩, 그이는 直히 醉한 神經과 「입」과의 두 存在 맞겐 아모것도 認할 수 업게 된다. 그 神經의 全體는 한 管絃樂이 되고, 그 입은 다뭇 歌음에 開閉된다.

△

自我最高의 美를 呑키며, 그 美에 融을 詩의 「느낌」을 普通「靈感」或은 「神興」이라 한다. 더 强하게 말하면 靈感「inspiration」은 神의 零白의 響기(句)로운 頰에 融을 詩, 그 손을 꼭 쥐일 디 이러나는 「魂의 淨한 肉感」일다. 이 肉感의 滴이 엉겨, 「쓰거운 말」이 되야, 全神經의 纖維의 絃에 슯쳐 썩러 질 詩가, 抒情詩의 낯는 境일가. 詩가 한 液體란 意義는 이곳에서 더욱 발게 盡하여진다.